



2차 자신학화 포럼

한국교회 자신학의 과거, 현재, 미래

평창 켄싱턴 호텔
10.04(월)~07(목)

2th

자신학화 포럼 위원회
Self-Theologizing Forum

자신학화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 선교 훈련 방향

장창수 선교사 (WEC IMM R&D)

올해 8 월 93 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세계적인 선교역사 학자 앤드류 월스 (Andrew F. Walls)는 세계 기독교학 (World Christianity) 영역의 개척자다.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지만 생의 대부분을 아프리카에서 보내며 그는 몸소 아프리카 교회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특유의 역동성을 경험 했다. 1966 년 영국 에버딘 대학교 스코틀랜드선교연구소(Scottish Institute of Missionary Studies) 소장으로 부임 하면서 그간의 경험과 연구를 통해 북반구에서 남반구로 이동하는 기독교 중심을 다루며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 종교로 거듭나게 되었다고 했다.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

기독교가 진정한 세계 종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나라에 복음이 증거 된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이것이 곧 모든 나라에 동일한 모습의 기독교를 세워 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세계 종교는 유일한 지리적 성지나 교리적 산지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 기독교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고 각각은 한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된다. 어느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더 중요하다 덜 중요하다 할 수 없듯이 (엡 1:22; 고전 12:12)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는 서로의 다름과 동등함을 함께 인정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서로에게 우월하지 않다. 그리고 마땅히 세계 선교는 이것을 이루어 가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 한다.

앤드류 월스 (Andrew F. Walls) 는 여러 학자들과 함께 출간한 '기독교의 미래'에서 기독교 역사를 크게 6 개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각각 단계마다 기독교는 당대 문화를 주도 했던 지역에서 그 문화를 토양으로 성장해 왔다. ¹

그가 제시한 6 개 시대적 단계는 유대시대, 그리스-로마시대, 이민족시대, 서유럽시대, 유럽의 팽창 및 기독교의 쇠퇴 시대를 거쳐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타문화 전달 시대이다. 복음이 늘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것은 땅 끝까지 증거될 복음의 피할 수 없는 운명이지만 '타문화 전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 속도와 범위는 이전의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복음은 다양한 문화와 만날 때마다 '번역 가능성' 이라는 탁월한 속성으로 문화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심겨지며 그 안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세계 종교로서 기독교는 이제 정말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차려진 원형 테이블에는 복음을 믿고 예수를 따르지만 서로 다른 모습으로 걸어온 이들이 와서 앉게 된다.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 모두는 서로를 존중해야 하고 서로를 들어야 하고 서로가 동등 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이 테이블에 앉을 자격이 주어진다.

세계 기독교 (World Christianity) 구성원으로서 한국 기독교와 선교

한국 선교는 100 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숱한 격동의 순간을 거치며 그 활동이 크게 확장 되지 못했다. 그래서 한국 선교가 기본적인 형태를 갖추고 세계 무대에 등장한 것은 198 년대 부터라고 할 수 있다. ² 그리고 이후 달려온 지난 40 년을 통해 한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선교 강국의 자리에 올랐다. 한국 기독교가 파송한 선교사는 168 개국에 2 만 2259 명이다 (2020 년 12 월 KWMA, KRIM 공동발표). 한 동안 세계 2 위의 해외 선교사 파송 국가라는 통계도 전해 졌다. 말 그대로 눈부신 성장이었다.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같은 기간 궤를 함께 하며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¹ 앤드류 월스, 남반부 기독교 시대의 도래,(청림출판, 2006), p13

² 안교성, 한국 선교 30 년의 명암,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8 호(2013 년 3 월 25 일)

한국 교회가 있다. 하지만 빌딩이 높으면 그림자도 깊은 것 처럼 한국 기독교의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와 과제들은 한국이 선교 강국에서 진정한 선교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여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는 건강한 구성원이 되고자 할 때 반드시 극복해야 과제들로 남겨져 있다.

세계 기독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구가 주도해온 근 현대 선교가 비 서구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한국은 비 서구 선교의 대표주자 역할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선교는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가? 성장의 측면만 따지면 당연히 기여했다 말할 수 있지만 성숙이 자격이라면 아직 당당하게 그렇다 말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다.

실제로 2010 년 전후 오직 성장을 목표로 달려온 한국 선교는 곳곳에서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다양한 포럼과 학술대회 그리고 선교연합 모임을 통해 성장 중심의 선교에서 건강한 선교로 세계 기독교 형성에 기여하는 한국 선교가 되기 위한 길을 찾고자 하는 노력들이 일어났다. 이 짧은 글에서 관련한 모든 문제와 논의를 다룰 수는 없다. 여기서는 '선교 교육'과 '선교 훈련'의 영역을 '자신학화' (Self -Theologizing)가 가진 역할과 의미를 중심에 두고 살펴 보고자 한다.

한국선교에 드러난 과제들

한국 선교가 자성의 시간에 접어들 때 즈음 설문을 통해 전해진 한국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 지도자들의 진단은 자성의 방향을 잡아가는데 좋은 단서가 되어 주었다.³ WEA 선교분과 의장 이었던 윌리엄 테일러 (William Taylor)는 보내온 답변을 통해 먼저 한국 선교의 강점과 세계 선교에 기여한 점들을 언급 하면서 파송 교회와의 긴밀한 관계와 헌신적인 후원, 사역자 개개인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신학 교육의 높은 수준과 한국이 가지는 지정학적 문화적 강점등을 꼽았다. 하지만 그가 지적한 한국 선교의 약점들 가운데 몇 가지 들은 전략의 부재, 공격적 사역과 파송전 훈련의 부족과 부적절함, 파송 교회의 영향력, 상황화에 대한 이해 부족, 소속교단 및 지역교회 중심적 사고와 행동에

³ 정민영 “한국 선교 및 선교사 평가” 설악포럼

다른 동역과 협력의 부족함 그리고 의외로 고비용 저효율 모델을 고수한다는 점 등이 있었다.

또 다른 국제 선교 리더로서 전 국제 OM 지도자 하워드 노리쉬 (Howard Norrish)가 보내온 것이 있었는데 그는 한국 선교의 강점은 윌리엄 테일러와 유사하게 한국 사역자들의 열심과 열정 그리고 교회의 후원과 지원 등을 강점으로 꼽았다. 그런 그가 경험하고 생각한 한국 선교의 약점 들은 조급한 결과 주의, 성직자 중심 사고와 사역, 다문화 및 다인종 협력의 어려움, 교단주의, 언어습득 문제,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인격과 소통 방식에 관련된 문제들을 제기했다. 지금으로부터 10 여년 전의 지적들 이지만 근본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전 아시아 기독교 협의회 총무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선교를 인정하지만 존경하지 않는다”⁴

다양한 의견들을 접하고 종합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몇 가지 원인 들이 있다.

첫째, 비서구선교의 대표 주자라고 하지만 정작 선교를 수행하는 방식은 서구 모델을 그대로 따라 왔다는 점이다. 이는 선교학에 있어서 자신학화 자선교학 이라는 과정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은 채 서구 신학을 특별한 주체적 해석없이 보편신학과 같이 받아 들인 결과이다. 고비용의 서구 선교 모델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서구 신학의 토대 위에서 자신학화 자선교학화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고 서구 선교 모델 극복은 결코 쉽지 않는 과제로 여전히 남겨져 있다.

둘째, 타문화 현장에서 신학적 경직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두 국제 선교 리더들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 선교사들의 신학적 교육 수준은 높다. 이것은 일견 장점으로 비추어 지지만 그 만큼 목회자의 비중이 크고 이미 신학적 체계와 관점이 형성된 가운데 자신의 신학적 체계를 그대로 이식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도 된다.

⁴ 안교성, 한국 선교 30년의 명암,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 38 호(2013 년 3 월 25 일)

여기에 헌신적 후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소속 교단과 파송 교회의 영향력은 현지인의 주체적 성장에 장애가 되고 선교사역의 현장성을 오히려 저해 하기도 한다. 현장의 필요보다 파송 및 후원 주체들의 선호를 더 우선하게 되기도 한다.

셋째, 성과주의 중심 선교를 수행해 왔다는 점이다. 이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빠른 시간내에 가시적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는 시간과 과정이 부족하다. 이는 행동 체계를 바꾸고 가치체계를 바꾸고 종래 세계관을 바꿀 때 복음이 내재화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뿌리가 깊이 내린 진정한 의미의 복음화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⁵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현지인 리더들의 건강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들을 그저 외국 선교사의 사역의 도구 사역의 조력자 단계에 머물러 있게 한다. 이는 강자의 선교, 시혜의 선교에 머물게 한다. 비 서구 선교동원 사역자로서 한 가지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은 전통적인 선교지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 졌지만 여전히 그들중 다수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준비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그들이 보고 배운 선교는 여전히 ‘강자의 선교’ ‘시혜의 선교’ 이기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온전한 선교를 위해 필요한 5 가지 ‘Self’

루퍼스 앤더슨 (Rufus Anderson)과 헨리 벤(Henry Venn)은 선교지에서 세워지는 교회들의 성장과 독립을 위해 필요한 세가지 원칙을 제안했다. 그것들은 ‘삼자정책’으로 알려진 자전 (Self-Propagation), 자립(Self-support) 자립 (Self-Governance) 이다. 삼자원리 라고도 하는 이러한 방식은 중국에서 오래 사역했던 네비우스 (John Nevius)를 통해 우리 나라에도 전해져 한국 기독교 초기 세워진 교회들의 빠른 주체적 독립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후 폴 히버트 (Paul Hibert)는 복음을 수용한 이후 현지인에게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를 부여하는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를 여기에 더하게 된다. 그리고 WEA 를 이끌었던 윌리엄 테일러 (William Taylor)는 여기에

⁵ 안점식 한국교회 자신학화 (Self-theologizing)의 방향 모색 현대선교 15 (한국선교연구원)

자선교학 (Self -Missiologizing)을 더하게 되는 이는 선교지에 세워진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제자와 교회를 자발적으로 재생산하는 과정의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 하기 위해서다. ⁶

선교 현장에서 제자를 길러내고 그들을 지도자를 세우고 5 가지 Self 를 단계적으로 이루어 갈 때 종래 현장에는 외지에서 온 선교사가 필요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선교'의 '온전한 목표'가 된다. ⁷ 실제 사도행전을 통해 나타난 바울의 사역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한 곳에 오랜 머문적이 없다는 점을 주목하게 된다.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우고 그는 또 다른 곳을 향해 나아갔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 하면서도 안타까운 것은 앞서 언급한 한국 선교의 오래된 문제들을 정리하다 보면 5 가지 Self 를 현지에 적용하기는 커녕 한국 기독교 형성 시기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삼자원리' 조차도 선교지에서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다는 곳이 많다는 것을 보게 된다.

2014 년은 한국 선교가 가장 활발하게 '자신학'에 대한 논의를 진척시켜 나간 해라고 할 수 있다. NCOWE VI 차 대회, 설악포럼 그리고 한국 선교연구소의 '현대선교' 에서도 '자신학'을 다루었다. 고민하는 이들은 한국이 자신학과 자선교학 이라는 영역에서 한 단계 올라서지 않고는 한국선교의 문제와 한계를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NCOWE 6 차 대회 발제에서 조명순 선교사는 한국 기독교가 어느 정도 자신학과 자선교학에 관심을 두며 이해하고 있는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역 목회자, 선교학 교수, 단체 사역자, 현장 선교사로 구분해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하고 분석한 보고서에서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학'에 대해서 듣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냈지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자신학'에 대해 이해 여부와 '자신학'의 필요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장 선교사'가 상대적으로 현저하게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⁸ 각 그룹이 선정한 우리나라의 자신학의 결과로서 우선 꼽은 것은 '새벽기도' 정도 였다.

⁶ 김연수 자신학화와 자선교학화 이슈와 필요성 NCOWE VI (2014)

⁷ 김성환 자신학을 넘어 자선교화로 GMS 선교대회 (2018)

⁸ 조명순 한국 자신학과 자선교학 정립을 위한 리서치 NCOWE VI (2014) "자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냐의 질문에 선교학 교수가 68.4% 인 것에 반해 현장 선교사는 지역교회 목회자 (16.0%)보다 낮은 불과 9.7% 였고 자신학 정립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그룹 가운데 가장 낮은 38.7% 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자신학의 가장 큰 목적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다. 한 문화 속에 복음이 깊이 뿌리 막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가 자신학 자선교학 영역에서 뒤쳐져 있다면 그만큼 여전히 우리 민족 안에서 기독교는 외래 종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복음은 깊이 내면화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러한 환경에서 자라서 현장 선교사로서 자신학의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고 사역 한다면 단기간 가시적인 성과는 가능해도 현장에 깊이 뿌리내린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자라서 주체적으로 성장하는 현지인과 현지 교회를 길러내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교 교육, 선교 훈련의 개선 방향

선교 강국이 되기 까지 한국 선교는 많은 사역자들과 교회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달려왔다. 우리가 선교 교육과 훈련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하는 것은 과거 이제까지 한국 선교 교육과 훈련이 모두 부족하고 잘못 되었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 적어도 세가지 측면 즉, 한국선교가 1)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해 2)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한계들을 개선하고 극복하고 3) 세계 기독교 형성을 위해 보다 필요할 역할을 알고 감당해 가기 위해서다.

첫째, 달라진 시대 환경에 맞는 길을 가기 위한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데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는 앤드류 월스의 시대 구분을 기준으로 '타문화 전달'의 시대인 동시에 비서구 중심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계 기독교라는 생태계 안에서 진정한 상호문화 작용을 감당할 수 있는 관점과 역량을 더욱 구비해 나가야 한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이제 1980년대 이래 선교 교육과 동원, 허입, 훈련, 파송, 은퇴, 그리고 은퇴 후 사역까지의 한 세대의 주기를 마무리해 가고 상황에서 다음 세대 다음 주기를 준비시키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변화가 자연스레 요구되어 지는 것이다.⁹

⁹ 최원진 '21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복음과 선교 제 24집 221-256

둘째, 현재까지 드러난 문제와 한계를 개선하고 극복하기 위해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데 한국 선교가 노출한 문제와 한계 들은 많은 부분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의 부재에 따른 것을 보게 된다. 대부분의 교육과 훈련이 파송전 훈련 (Pre-field Training)에 집중되어 있지만 시대에 반응하고 과거로부터 이어온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의 재교육 재훈련 도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결코 길지 않지만 선교의 한 세대 한 주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선교도 보다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을 전담할 사역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셋째, 세계 기독교 형성을 위해 변화 개선이 필요한데 선교 강국으로서 많은 사역자들을 쏟아내고 어디든 미지의 땅 미개척의 땅으로 향하게 하던 것에서 선교 선진국으로서 좋은 사역자들을 양성해서 현지 기독교 주체들이 변화하고 성장하고 주도하게 하는 과정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역자들을 이제는 보내야 한다. 선교를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교를 수행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자원들이 필요하고 세계 기독교가 한국에 바라는 것도 이와 같을 것이다.

3 가지 단계와 현장: 지역교회, 선교사 훈련, 선교 현장 훈련

자신학의 관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위해 선교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는 3 가지 현장, 3 가지 단계를 구분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살펴보며 필요한 제안을 해보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선교 교육과 훈련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적용해야 할 공통적인 원리 들이 있는데 1) Un-learning (탈학습) 2) 성인 학습 기반 3) 내적 동기의 활성화 이다.

먼저, Un-learning (탈학습)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수행하고 이해해온 한국 선교 안에 오랜 동안 내재되어 있는 서구 선교의 요소들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비서구 선교 주체 이기에 무작성 서구 선교의 요소들을 배척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우리가 계승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고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걷어 내야 하는데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 자신학과

자선교학 과정이 부족했던 한국 선교는 앞서 언급 했듯이 비교적 보수적인 선교관을 서구 신학으로부터 그대로 수용하고 보편적 가치를 부여했다. 더우기 중세 유럽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적 확장을 선교의 방식과 가치로 이해하여 힘과 우월함을 바탕으로 하는 선교를 계승한 것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요소로 남아 있다. 김동화 선교사는 Christendom 시대로 부터 이어져 내려온 제도를 앞세운 성직자 중심의 정복과 통치 방식의 선교와 계몽주의와 근대성에 뿌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경험보다 교리 체계의 이해와 동의로 신앙이 완성된다고 믿고 지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는 것을 지향하는 선교 그리고 포스트 모던 주의와 다원주의 영향 아래 성경의 절대 권위가 흔들리며 신앙의 공동체성 보다 개인주의적 가치를 보다 중요시 하는 형태의 선교 등은 계승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¹⁰

또한 필요한 것이 '성인 학습 기반'이다. '성인 학습 기반'은 피교육자 들이 스스로 읽고 생각하고 수용하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배치하는 것이다. 일방적인 강의나 주입이 아닌 개개인의 가진 성향과 특성도 존중하는 가운데 배우고 느끼고 변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기 보다는 많은 질문을 제공하고 많은 경험담을 듣기 보다는 가능한 경험하게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 같은 과정 안에서 각기 다른 부분의 깨달음과 도전을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다. 최대한 자신이 주도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공간을 허용하고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교육의 형태는 학교교육 중심형태인 형식교육 (formal training), 경험 중심의 무형식 교육(nonformal training), 그리고 사회화의 형태인 비형식 교육(informal training)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오늘날 선교훈련은 대부분 다양한 방식을 혼합한 형태로 이루어 진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제자를 훈련시킬 때 형식적인 훈련 방법보다는 무형식적(non-formal)이거나 비형식적(informal)인 교육 방법인 도제 형식(apprenticeship)이나 멘토링(mentoring)을 사용한 것을 주목하며 상대적으로 친숙한 형식교육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무형식 또는 비형식 교육 방식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¹¹

¹⁰ 김동화 '서구 선교로 부터 계승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 설악포럼 발제

¹¹ 최원진 21세기 선교현장에 맞는 한국 선교사를 위한 선교훈련 복음과 선교 제 24집 221-256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내적 동기 강화' 방식이다. 성장과 활동 일변의 환경에서 구성원들은 각자의 내적 동기를 통해 반응하기 보다는 외적 자극이나 보상에 따라 대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외적 동기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또 다른 이들에게 외적 자극이나 보상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당장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인 헌신과 주체적 헌신의 계승이라는 면에서는 늘 문제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인에게 '내적 동기'는 성령이 조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이다. 우리는 과거 역사와 학문적 논리 그리고 개인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선교 교육과 훈련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해석을 통해 각자가 내면화 하고 내재화 하는 과정을 진행해 가야만 한다. 외적 자극을 통한 강렬한 일시적 헌신보다 내적 동기를 통한 견고한 일생의 헌신이 더 가치를 지닌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충성 (Loyalty)는 누구의 강요나 조장이 아닌 나의 결정 나의 결단으로 수용하게 된다.

1) 지역교회 교육 과 훈련 - 제자훈련 중심

오늘날 지역교회에서 이루어 지는 선교 교육과 훈련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과거 선교의 프레임이 그대로 전달되고 피교육자 (피훈련자)들의 주도권이 제한된 방식으로 진행되며 내적 동기 형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은 좋은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선교의 대위임령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28 장 19-20 절 사도행전 1 장 8 절에서 예수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다.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 재생산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핵심 원리이다. 실제로 선교사들이 현장에서 진행하는 사역의 유형을 조사해 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여전히 '제자훈련'이다. 한국에서 '제자훈련'은 보통명사 임에도 고유명사와 같이 받아들여 진다. 실제로 한 선교 단체의 제자 훈련 과정을 모티브로 해서 지금은 대형 교회로 성장한 한 지역교회가 양육체계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국제적 위상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리 시대적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가 보여주시고 바울의 가르쳐 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과는 다소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충분히 훌륭한 양육 체계 임에도 40 여년의 시간을 통해 드러낸 문제와 한계들 에는 1) 성직자 주도의 교육과 훈련 2)

교회 사역을 위한 리더십 과정 3) 대상과 상황에 따른 유연성 부재 4) 지적 학습 과정 등이 있다.

지역교회 선교 교육과 훈련을 다루며 '제자훈련'을 언급하는 이유는 어느덧 이 프로그램이 선교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방식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가 사용한 제자의 개념은 히브리어 '탈미드'로서 랍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경험한 이들 가운데 이제 일생을 스승인 랍비와 같이 동행하며 그와 같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을 나도 하겠다는 헌신을 하고 따르는 자들을 말한다. 예수는 그들을 회당 안에 모아 놓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여정에 동행 하시며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기 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 하시며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면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가셨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다른 인생에게 다가가 예수가 하신 일을 했다.

하지만 현재 제자훈련은 목회자가 일정 기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참가자들이 신앙을 훈련을 쌓는 수준을 반복하게 되고 다양한 부르심을 따르기 보다는 교회내 주어진 사역에 리더로서 세워지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교회 성장론 의 요소로 남아 있다. '평신도를 깨워' 세상에 진정으로 파송 하고자 한다면 그들에게 성경을 주도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것이 진정한 만인제사장 주의가 되겠지만 현실은 교재의 테두리를, 프로그램의 테두리를, 교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동일한 상황이 선교지 에서도 '제자훈련' 이라는 사역 방식으로 재생산 되고 있다. 제자훈련 프로그램에도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들을 인정하고 Un-learning 의 시행과 성인학습기반의 전환 그리고 내적 동기 중심의 교육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더욱 큰 시대 영향력과 가치를 가진 훈련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2) 선교사의 교육과 훈련

선교 헌신자 또는 실제 선교 현장을 준비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훈련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교단별로 단체별로 유형별로 세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고 훈련생 들을 모집하고 있다. 또한 선교사들의 선교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주된 채널로는 신학교도 빼놓을 수 없다. 목회자 들의 기본과정 안에도 선교관련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아예 선교대학원 과 같은 형태의 선교 집중 과정도 개설되어 많은 수료생 들을 매년 배출하고 있다.

특별히 세계 기독교 형성과 온전한 선교를 수행하기 위해 절실한 자신학과 자선교학을 위한 소양을 갖춘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학적 유연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신학적 유연성은 다원주의나 혼합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흠결이 없는 완전한 보편신학은 존재하지 않기에 나의 신학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다른 문화에서 형성된 신학을 경청하고 상호작용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신학을 한다는 것은 학문의 문제가 태도의 문제이다. 나의 신학이 환경과 대상에 상관없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예수님의 시대에 '자기의'에 취해 살아가던 종교인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 모든 것을 마구 수용하고 혼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듣고 각자를 돌아보아 보다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한 길을 가자는 것이다. 실제 선교지에서 교단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보수적 신학 교육을 받고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선교사들은 자신이 의도하지 않아도 신학적 경직에 따른 배타성과 주도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교단 이식을 넘어 개교회 이식, 개인 사상 이식의 치명적 실수를 하기도 한다.

한국 기독교가 수용한 서구 신학 가운데 탈학습의 대상을 놓고 분별하고 일방적 강의와 수납 방식의 교육에서 벗어나 서로에게 공간을 주며 자기 부르심과 사역 형태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내적동기를 지속적으로 돕는 교육과 훈련 방식이 기존의 과정에 더해져야 한다.

3) 선교 현장의 교육과 훈련

선교지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훈련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 교회와 선교 주체들이 파송전 훈련 과정을 충분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간다면 현장에서 이루어질 교육과 훈련을 특별히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다. 이미 충분한 관점과 태도와 소양을 갖춘 이들은 현지인 들에게 자기의 신학을 그대로 심기 보다는 그들의 신학이 일어나길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선교지 신학교 교육과 리더십의 양육과 위임의 과정에서 사역자들은 현지인들이 충분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학에 머물지 않고 자선교학을 돕고 격려하여 선교지의 교회가 Believer's Container 가 아닌 선교적 교회로 재생산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재생산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주체가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질서를 창조하셨다. 제자가 제자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낳는 과정이 지속되기 위해서 선교 교육과 훈련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중심에는 자신학 자선교학의 원리들이 담겨 있어야 한다. 사무엘 호프만 (Samuel Hoffman) 은 "전도자로서 사랑을 받고 교사로서 호감을 받던 선교사가 행정가 로서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 고 했다.¹²

한 세대 한 순환주기를 지난 한국 선교 안에 선교사들의 출구 전략과 은퇴에 이슈들이 비중있게 다루어지는데 이는 행정과 제도로써가 아니라 사실 사역의 건강한 흐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이다.

맺는 말

선교지에서 자신학화는 신학의 완성 정도가 신학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으며 복음이 실제 전해져야 할 대상과 환경을 얼마나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한국 선교는 선교 강국으로 보다 많은 사역자를 파송 하는 것에서 선교 선진국으로서 보다 필요한 사역자를 양육하여 세계 기독교를 위해 파송 하는 것에 더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의 성품과 닮아가고 그리스도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내적 동기로 헌신한 이들이 한국 기독교 안에서 배출되어 세계 기독교의 테이블에 중요한 자리에 배석해서 함께 하기를 기대해 본다. 선교훈련은 자격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선교현장은 자격을 가지고 가는 곳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가는 곳이다.

¹² 박기호 '현지교회를 선교교회로 세우는 방안' GMS 20주년 기념 선교대회 발제